



바흐 IOC위원장

“2020도쿄올림픽때부터 유전자 검사로 도핑 체크”

바흐 IOC 위원장, 도입 가능성 언급

금지약물과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전자 검사다.

올림픽과 IOC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전문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6일(한국시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66)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최근 열린 세계반도핑기구(WADA) 컨퍼런스에 참석해 ‘2020도쿄올림픽에서 건조 혈반(Dried blood spot)을 활용한 유전자 검사를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유전자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경우, 약물 사용 후 최대 수개월 동안 체내에 남은 약물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며 “WADA가 유전자 검사 방법을 승인한다면 도쿄올림픽부터 즉각(검사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떤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정 약물을 사용할 경우, 체내 유전 형질이 일부 바뀔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하게 불법약물 사용을 확인하는 한편, 복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도핑 연구는 영국 브라이턴대학에서 진행 중인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사이드더게임즈는 보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도핑테스트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역대 어느 대회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유전자 검사가 도입될 수 없더라도 유전자 표본을 선수단 동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에 활용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도핑테스트는 당초 계획보다 빨리 적용되는 것이다. IOC는 2022베이징동계 올림픽부터 이를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 일정 변화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특히 불편함이 줄어든다. 혈액 몇 방울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어 소변 등을 통한 기존의 복잡한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미소 되찾은 손흥민, 곧바로 UCL 원정 채비

〈7일 UCL 조별리그 B조 4차전 즈베즈다전〉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英 축구계 일각서 징계 완화 요구
토트넘, 축구협회에 항소도 한몫
징계 풀린 손, 훈련 중 간간히 미소

상대 선수의 부상을 유발한 태클로 큰 충격을 받았던 손흥민(27·토트넘)이 어렵게 미소를 되찾았다. 자신에게 내려진 중징계가 해제된 뒤 임한 훈련에서 안도의 웃음을 지어보였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6일(한국시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FA 규제위원회가 손흥민에게 내려졌던 (퇴장) 판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손흥민은 다음 경기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고 징계 소멸을 알렸다.

손흥민은 4일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1라운드 에버턴 원정에서 상대 선수 안드레 고메스에게 태클을 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메스가 쓰러지며 토트넘 수비수 세르지 오리에와 충돌했고, 결국 고메스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파울 직후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한 손흥민은 다음날인 5일 EPL 사무국으로부터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소 위협했던 백태클이 고메스의 부상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추가 중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축구계 일각에선 “손흥민에게 내려진 징계가 너무 과하다. 손흥민은 선수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



최근 경기 도중 백태클로 에버턴 안드레 고메스의 부상을 야기했던 손흥민(왼쪽)이 6일(한국시간) 2019~2020 UCL 초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 원정을 앞두고 진행된 훈련에서 얻은 미소를 되찾았다. 이날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손흥민에게 내려졌던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해제했다.

베오그라드(세르비아) | AP뉴시스

며 징계 완화를 요구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역시 FA를 상대로 곧장 항소했다.

결정권을 줬 FA는 당시 부상 장면을 면밀히 파악했고, 손흥민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인하며 토트넘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추가 중징계로 가

슴앓이를 했던 당사자는 어렵게 미소를 되찾았다. 손흥민은 2019~2020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B조 4차전 초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 원정을 하루 앞둔 6일 진행된 전체훈련에서 조심스럽게 웃는 모습을 내보였다. 토트넘은 이날 훈련 장면을 일부 공개했는데, 손흥민은 미소를 띠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상적으로 연습을 소화했다. 고메스의 부상 직후 큰 충격을 받아 눈물까지 흘렸던 모습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역시 손흥민을 7일 초르베나 즈베즈다 원정 명단에 포함시키며 여전한 믿음을 과시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재계약 내용 녹취파일 없었다는데…의혹만으로 ‘팽’ 당한 장정석

키움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

결별 사유라던 ‘녹취 내용’은 거짓
이 전대표 경영개입 보도 하루만에
하승대표-손혁 코치 면접도 상식밖
경영진 감시 역할 허민 이사회 의장
감독 선임 관여했다면 심각한 월권

키움 히어로즈가 장정석 전 감독과 결별 후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내용이 많고 대부분 사실 확인도 부족하다. 거짓 해명이라는 반박까지 나왔다.

키움은 6일 이장석 전 대표가 얼마 전 물러난 옛 경영진에게 장 전 감독과의 재계약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공개했다. 장 전 감독이 이 전 대표를 면회했다는 부분도 강조하며 결별 사유로 설명했다. 근거로 임은주 부사장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임은주 부사장은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녹취 중 장 전 감독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나뿐 아니라 모든 프런트가 장 전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고 재계약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키움은 장 전 감독의 개인적인 면회 사실까지 공개하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오히려 감독교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독단적이면서 졸속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상세히 드러났다. 키움 강태화 홍보·마케팅 상무는 “구단은 장 전 감독 재계약이 거론됐다는 녹취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경영진에게 재계약을 지시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약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단의 설명과 달리 직접적인 녹취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면회 또한 구단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키움은 6일 장정석 전 감독과 결별한 것은 이장석 전 대표의 ‘육중경영’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과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구단을 장악한 허민 의장(사진)이 있다. 손혁 신임 감독은 허 의장과 친분이 두텁다. 스포츠동아 DB

해외 수상 노리는 BTS, 어디까지 휩쓸까

4일 MTV 유럽 뮤직 어워즈서 3관왕
10일 E!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겨냥
24일엔 ‘아메리칸뮤직 어워즈’ 도전
내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를지도 관심

그룹 방탄소년단이 잇단 해외 수상을 노리고 있다. 올해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10월 말 서울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이어온 스타디움 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Speak Yo

urself)’를 마무리한 이들의 새로운 결실에 기대가 쏠린다.

방탄소년단은 4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2019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라이브’, ‘베스트 그룹’ 등 3관왕을 차지한 뒤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2019 E!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트로피를 겨냥한다. 이미 ‘올해의 그룹’, ‘올해의 뮤직 비디오’ 등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있다. 지난해 ‘올해의 그룹’ 등 4관왕을 차지했던 이들은 ‘올해의 콘서트 투어’에 이름을 올리며 스타디움 투어로 이룬 성과를 평가 받는다.



BTS

걸그룹 블랙핑크도 3개 부문에 후보가 돼 케이팝의 또 다른 힘을 과시하게 됐다.

24일에는 ‘2019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팝·록 부문 그룹 등 3개 부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이날 시상식에서도 ‘올해의 투어’ 부문에 후보로 올라

흥미로운 부분은 손혁 신임 감독의 면접 날짜다. 이 전 대표의 경영개입 의혹이 보도된 날짜는 10월 30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손혁 코치는 하승 대표와 면접을 했다. 단 하루 만에 감독교체, 신임 감독 후보 면접이 이뤄진 셈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키움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허민 이사회 의장이 이틀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한 야구인은 “포스트시즌 시작 전 장 전 감독을 만났다.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며 “돌이켜보면 ‘이장석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모두 좌천되고 물러나는 시기였다”고 전했다. 키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실상 허민 이사회 의장이 구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맡았는데 감독 선임까지 깊숙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감독 낙점을 허 의장이 했다면 심각한 월권행위다. 하승 대표는 허민 의장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심복이다. 허민 의장과 손혁 감독은 오래전부터 깊은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내셔널퍼칭 어소시에이션(NPA)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이 펼쳐온 스타디움 투어가 해외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2017년 아시아권 가수로는 처음으로 시상식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한 이들은 지난해 소셜미디어 부문에서 수상했지만 올해는 팝·록 부문 그룹과 공연 부문의 후보가 돼 아티스트로서 역량도 평가받은 셈이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해외 수상 성과에 대한 기대는 내년 그래미상으로도 향한다.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20일 각 부문별 후보를 발표하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올해 시상식에 한국가수로는 처음으로 시상자로 나선 바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